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주력

무주군, 농식품부 주관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 선정

무주군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지원 조직(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이력과 △무풍면, 적상면 등지에서 시행한 주민 수요 조사 및 지원 조사, △마을 리더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추진 실적(2017년~2025년 현재) 등에서 호평을 받아 지원 대상 지자체가 됐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인 전국 140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에는 서비스 현황·전망, 기본방향·목표·전략,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부금품 등 재원 마련, 농촌서비스 협약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활성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시범계획 수립 차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

완식 과정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농촌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시설 폐업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원)’을 비롯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1천만 원)’ 등 농촌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 이제는 세계로’

군산항 입항 여객선 연계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 대상 팸투어 진행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항에 입항하는 여객선 ‘석도해리’와 연계해 지난 12일과 13일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자들은 무주군 대표 관광지인 덕유산과 무주덕유산리조트를 둘러보고 안정면 두문마을에서 낙화봉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태권도원과 무주덕유산리조트를 방문해 태권도 성지이자 겨울 레포츠 명소로서 무주군의 매력을 확인했다. 무주지역 특산물인 반딧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체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팸투어 참가자 푸위(付宇) 한국여행공사 중국지사장은 “석도해리와 무주군을 연계한 이번 방문이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됐다”라며 “특히 무주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별한 전통문화의 조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다양한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여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관광발전지수 1등급’, ‘전국 10대 지역관광 매력 도시’, ‘내한민국 발발곡곡 100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의 위상을 보여줄 방침이다.

무주군정 관광진흥과 이현우 과장은 “석도해리와 연계한 무주관광 프로그램



램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K-관광수도를 지향하는 무주군이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상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특별시 무주 이제는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지난해 베트남과 중국, 대만을 겨냥한 팸투어 및 국제 박람회 참가, 관광정책 교류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무주군 관광협회의회, 3도3군, 백제문화권 연계 해외 공동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추진에 매진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읍·면 연초 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진안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연초 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주영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11개 읍·면을 돌며 수렴한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총 301건으로 완료 27건(9%), 단기추진 148건(49%), 장기검토 101건(34%), 불가 25건(8%)으로 집계됐다.

군은 연초방문이 끝난 후 즉시 실과

소별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27건은 4월 중 완료했으며, 114건은 2025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34건은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보고됐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101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단,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



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25건은 불가로 분류해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항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 차원 산불 대응 강화 촉구

진안군의회,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 11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진안군 전체 면적의 76.7%가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상 대형 산불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 확산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표 발의자인 이투라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만의 역량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

려워 인력 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시급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는 △산림과 인접한 마을별 소화전 설치, △현대식 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임을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산불 대응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촌활력 특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진안군 정천면 학동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산촌활력 특화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산촌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마을 산촌활력 특화사업 신규 대상지는 8개소로 전북도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산촌 자원조사, 민간기업 연계,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행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정천면 학동 산촌생태마을은 씨 없는 꽃감을 활용한 브랜드화 및 상품개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위한 꽃묘 공급

장수군은 14일부터 아름답고 활기찬 시가지 조성을 위해 꽃묘 양묘장에서 생산한 가지니아 외 3종 24만본을 읍·면 시가지와 주요 관광지에 본격적으로 식재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꽃묘는 가지니아, 페튜니아, 오스테오스펠름, 석조로 가지니아와 논개사당, 누리파크, 만남의광장 등 주요 관광지를 화사하게 장식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꽃묘 양묘장에서 올해 1월부터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자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장수 만들기’를 위해 메리골드, 맨드라미 등을 포함해 연간 10종, 70만본의 꽃묘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8~21일 열리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행사장에도 양묘장에서 생산된 배고나리, 국화 등의 꽃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양수발전소 유치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

진안군은 신규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제1회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에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의 위원 및 행사참석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안 양수발전 유치 기원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진안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최적의 입지임을 알리고 양수발전이 지역에 가져올 다양한 기대효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자리인 만큼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진안지역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응원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단합된 힘이 유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주천면에서 개최한 ‘진안고원 고로의 축제’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운행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사회적교통약자 탐방 편의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셔틀버스는 오는 19일~10월 31일까지 구천동주차장~백련사(약6.1km) 구간에 하루 5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은 차량 정비 위해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간 내 도로정비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